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멕시코









United Mexican States

2023년 3월 16일 | 조사역(G3) 이지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1,964천 km <sup>2</sup> 	<b>인구</b> 1.3억 명 (2022 <sup>e</sup> ) 	<b>정치체제</b> 연방공화제 	<b>대외정책</b> 친서방 실리주의 
<b>GDP</b> 1.4조 달러 (2022 <sup>e</sup> ) 	<b>1인당GDP</b> 10,948달러 (2022 <sup>e</sup> ) 	<b>통화단위</b> Peso(Ps) 	<b>환율(US기준)</b> 20.13 (2022) 

- 멕시코는 1.3억 명의 인구나 1,964천 km<sup>2</sup>(한반도의 19.6배)에 달하는 영토를 보유한 세계 15위 및 중남미 2위의 경제대국으로 원유, 은, 아연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원유 수출 및 대미 교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과 미국의 경기 변화 및 대외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2018년 12월 출범한 AMLO 행정부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여력 확보, 사회적 측면에서는 부패·치안 문제 개선을 표방하였으나, 국영기업 앞 과도한 자본 투입, 치안환경 악화 등에 따라 정책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발효를 통해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무역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국 공기업에 전력 공급 우선권을 주는 멕시코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미국-캐나다와의 협의가 진행 중으로 무역분쟁 가능성이 상존함.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1. 26 수교 (북한과는 1980. 9. 19)

**주요협정** 무역협정('69), 문화협정('69), 사증면제각서교환('79), 항공협정('89),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90), 이중과세방지협약('95), 범죄인인도조약('97), 외교관·관용사증면제협정('97), 관광협력('97), 투자증진·보호협정('02), 세관협력협정('06), 형사사법공조조약('07), 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협정('13)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출	8,241,006	11,290,248	12,654,084	자동차부품, 철강판,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6,355,879	7,888,878	8,578,094	원유, 기타금속광물, 자동차부품

**해외직접투자현황(누계, 2022년 9월 말)** 469건, 7,162,894천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sup>e</sup>
경제성장률	2.2	-0.2	-8.1	4.8	2.1
소비자물가상승률	4.9	3.6	3.4	5.7	8.0
재정수지/GDP	-2.2	-2.3	-4.4	-3.8	-3.8

자료: IMF, EIU

###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경기 둔화로 경제 성장세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제한적일 전망

- 멕시코 경제는 2022년 상반기에 노동시장 여건 개선, 재정정책 지원, 기대 이상의 석유 수출 수입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속도를 냈으나,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공급발(發) 인플레이션 및 글로벌 긴축 기조로 인해 전년(4.8%) 대비 저조한 2.1%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멕시코 통계청(INEGI)에 따르면, 2022년 3분기에 전분기 대비 4.1% 성장하며 4분기 연속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뒤이은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0.4% 성장에 그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됨.
- 2023년에는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과 니어쇼어링(Nearshoring, 인접국에서 이루어지는 아웃소싱)의 긍정적 파급효과 등으로 인해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겠으나, 높은 인플레이션, 글로벌 긴축 정책에 따른 금융조건 악화로 인해 주요 교역국인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 경제성장 전망이 악화됨과 더불어 정부 주도적 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민간 투자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은 1%대로 저조할 전망이다.
- IMF(2023. 2월)는 상당한 수준의 내수시장 수요 회복 탄력성이 기대되고 주요 교역국의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 2023년 멕시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022. 11월) 1.2%에서 1.7%로 상향 조정하였음.
- 장기간 이어진 팬데믹과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으로 멕시코 가계·기업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였으며,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해 위축된 민간투자는 멕시코의 저성장 전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그 외에도 저조한 공공투자, 높은 빈곤율, 열악한 치안환경 등이 성장 제약 요인으로 분석됨.

[그림 1] 2021년 멕시코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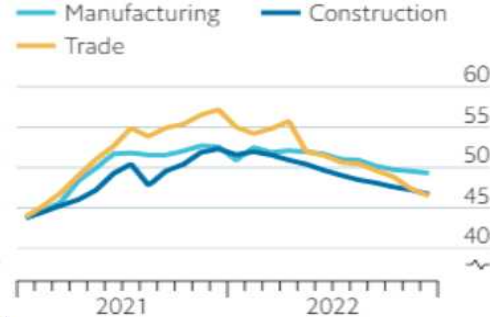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INEGI, Trading Economics

[그림 2] 멕시코 기업 신뢰지수

(범위: 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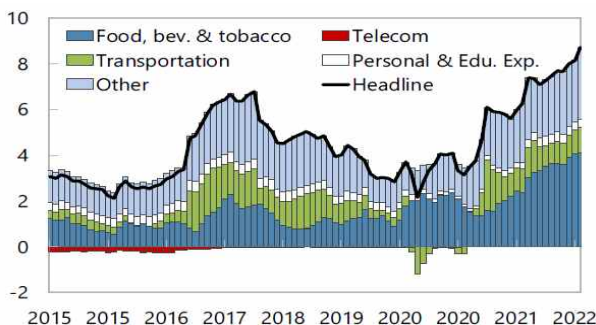
자료: INEGI, EIU

## 국내경제

### 고물가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고금리 기조는 2023년에도 유지될 전망

- 2022년 멕시코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0%를 기록하며 멕시코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3±1%)를 크게 상회함.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생산·물류 차질 등으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데 기인함. 멕시코 중앙은행은 2023년 멕시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분기 평균 7.5%에서 점차 하락하여 4분기에 4.2%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함.
  - 멕시코 정부는 보조금 지급 등 인플레이션 대응 패키지(PACIC)\* 도입을 통해 급격한 물가 상승을 억제코자 하였으며, IMF에 따르면 정부의 연료비 보조금 지급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약 2%p 낮춘 것으로 추정됨. EIU(2023. 1월)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전제로 긴축 통화정책의 효과를 통해 멕시코의 2023년 말 물가상승률을 전년보다 다소 완화된 5% 수준으로 전망함.
- \* 소비자물가상승률 산정에 포함되는 '기본 장바구니' 품목 40개 중 24개 품목의 가격 상승폭 억제를 위해 보조금 지급, 수입관세 면제 등으로 공급비용 축소
- 2022년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최근 20년 사이 최고치인 8.7%를 기록하였고, 12월에도 7.8%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유지함. 특히 식료품 가격은 2022년 8월 14.1%가 상승했으며, 이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멕시코 국민의 주요 불만 요인으로 대두됨.
  - 2023년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7.9% 상승하며 전망치를 웃돌자 멕시코 중앙은행은 2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였으며, 이로써 2021년 6월부터 총 700bp의 기준금리 인상(4%→11%)을 단행함. 멕시코 중앙은행은 미 연준과 매우 흡사한 통화정책을 시행하여 미국 기준금리와의 금리 격차를 600bp 내외로 유지 중이며,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낮추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지속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2023년에도 긴축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 3]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 비중 추이 (단위: %)



[그림 4] 멕시코 기준금리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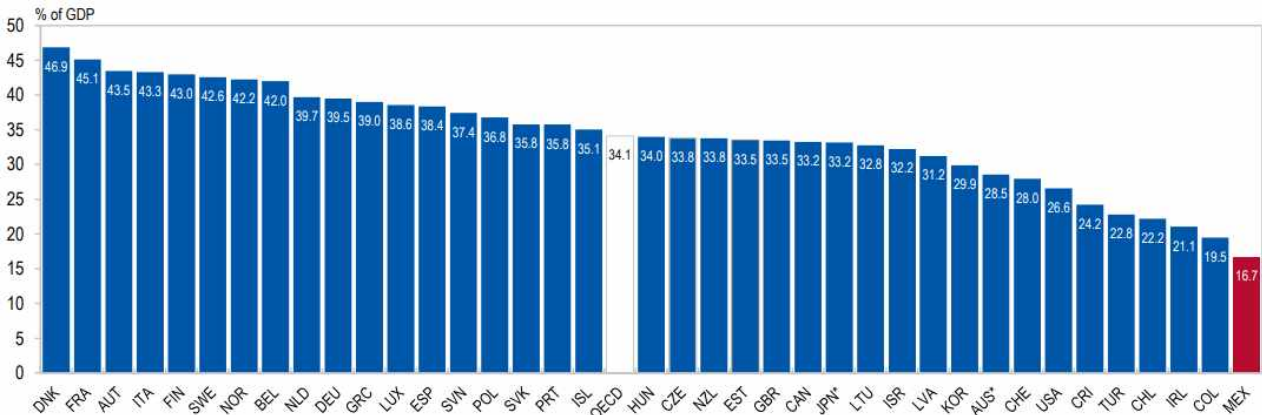


## 국내경제

### 경제활동 위축과 원유 수출가격 하락에 따른 세입 증가율 둔화로 재정적자 확대 전망

- 2018년 안드레아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적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긴축 재정정책을 고수해왔으며, 재정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여타 인접국과 비교하여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국영 석유기업 PEMEX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해온 점, GDP 대비 세입 비중(16.7%)이 OECD 평균(34.1%)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위험요인으로 간주됨.
- 2022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8%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됨.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 관련 세입 증가 및 멕시코 국세청(SAT)의 탈세 추징 강화 등의 재정수입 증가 요인과 PEMEX 앞 금융지원 지속,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보조금 지출, 코로나19 관련 보건 지출 및 공공투자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 2022년 9월 8일 멕시코 재무부가 하원에 제출한 2023년 예산 및 조세 개혁안에 따르면, 2023년 연방 지출예산 규모는 사상 최고 수준인 8.26조 페소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하였음. 2024년에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공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에 따른 석유 관련 정부수입 감소로 인해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AMLO 행정부는 내수 경제 증진 및 조세 회피 최소화 등 재정 건전화에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나, 대내외 상황으로 인해 2023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4.1%로 전년(-3.8%) 대비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EIU(2022. 11월)에 따르면, PEMEX에 대한 금융지원은 연금 지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마야 열차, 도스 보카스 정유소 등) 투자와 함께 정부에 의해 이미 수년 간 계속되어 현재 시점에서 감축하기 어려운 단계에 놓여 있음. 이는 예산지출의 경직성(rigidity)을 강화하여 향후 멕시코의 재정부담 해소를 어렵게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멕시코 당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AMLO 행정부는 증세 및 세원 확충보다 세제 간소화 및 탈세 방지에 더욱 주력하고 있어, 향후 세입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그림 5] 2021년 멕시코 등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세입 비중 (단위: %)



자료: OECD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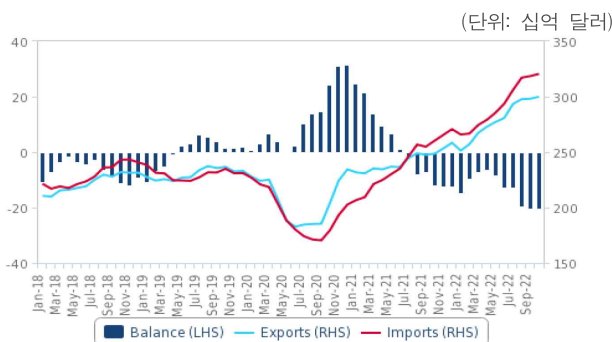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 상 수 지	-24,350	-3,408	27,101	-4,844	-13,423
경상수지/GDP	-2.0	-0.3	2.5	-0.4	-1.0
상 품 수 지	-13,768	5,168	34,151	-10,915	-58,377
상 품 수 출	451,082	460,940	417,323	495,090	582,906
상 품 수 입	464,850	455,772	383,172	506,005	641,283
외 환 보 유 액	165,197	170,580	184,175	180,766	174,771
총 외 채	455,828	464,804	463,819	447,828	462,596
총외채잔액/GDP	37.3	36.6	42.6	34.5	32.5
D.S.R.	10.8	12.5	12.7	11.3	7.2

자료: IMF, EIU

###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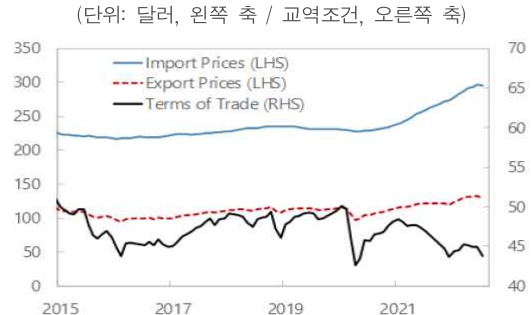
- 2022년 멕시코의 상품수출은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하며 멕시코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내수 회복에 따른 상품수입 증가 및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 멕시코 내 다국적 기업의 본국 해외송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0.4%) 대비 소폭 악화된 -1.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3년에는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대두, 원자재 수출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대외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나,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수입수요가 줄어들어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1.2%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6] 멕시코 월별 수출·수입 및 경상수지 추이



자료: 멕시코 중앙은행, Fitch Solutions

[그림 7] 멕시코 평균 수입·수출 가격 및 교역조건 추이



자료: National Authorities, Haver Analytics,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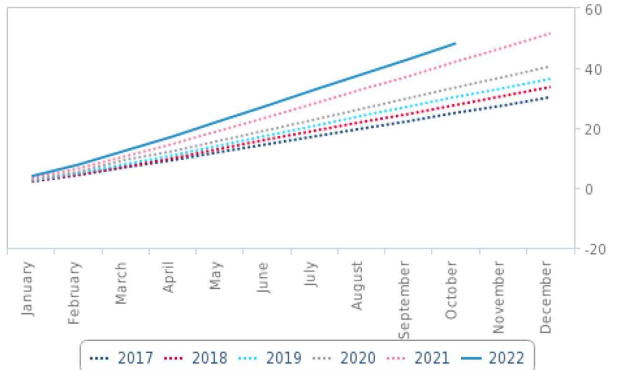


## 대외거래

###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 및 외국인직접투자(FDI)은 최고치 경신, 폐소화 강세는 약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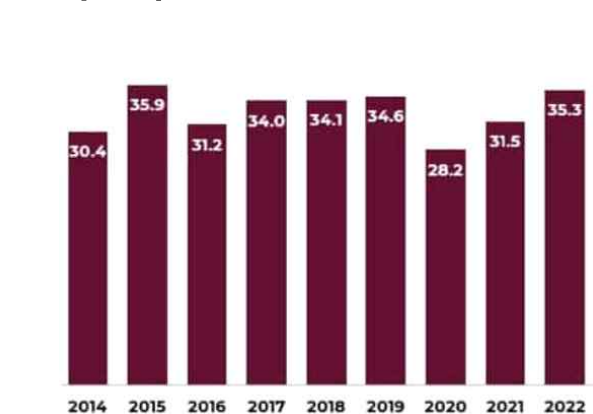
-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은 멕시코의 주요 외화수입원 중 하나로,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7.1% 증가한 585억 달러가 유입되어 2년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전체 송금 유입액 중 약 95%를 차지하는 미국의 경기부양 기조가 2022년에도 이어진 데 기인하며, 미국 내 멕시코 이민자의 실업수당 확보, 미국의 고용 회복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다만, 2023년에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Tapering) 실시 및 미국의 경기 회복세 둔화 등으로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022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진정에 따른 글로벌 투자심리 회복, 니어쇼어링 등으로 인해 전년(315억 달러) 대비 12% 증가한 35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23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대외 조건 약화에 따라 니어쇼어링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FDI 유입액이 332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멕시코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및 미국·캐나다와의 신무역협정인 USMCA의 발효 등의 요인으로 매력적인 니어쇼어링의 허브로서 거론되고 있으나, 당국의 기업 규제, 불규칙한 전력 공급, 부실한 도로 및 철도 인프라 등의 요인이 대 멕시코 외국인투자의 증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2022년 멕시코 폐소화의 미 달러화 대비 가치\*는 전년 말 대비 약 5% 절상되었으며, 이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통화 약세 가운데 눈에 띄는 성과임. 폐소화 강세 요인으로는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응한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기록적인 해외 송금 유입, 수출 및 FDI 유입 증대 등이 있음. 2023년 폐소화는 미국 경기 침체에 따른 멕시코의 수출 부진 및 해외 송금 유입액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5% 가량 절하될 것으로 전망됨.  
\* 20.51('21.12.31.) → 19.51('22.12.30.)
- 2022년 멕시코는 상품수지 적자 등으로 전년(1,808억 달러) 대비 약 3% 감소한 1,748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멕시코의 2022년 월평균수입액의 2.8개월분에 해당함.

[그림 8] 연도별 멕시코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멕시코 중앙은행, Fitch Solutions

[그림 9] 멕시코 FDI 유입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National Foreign Investment Regi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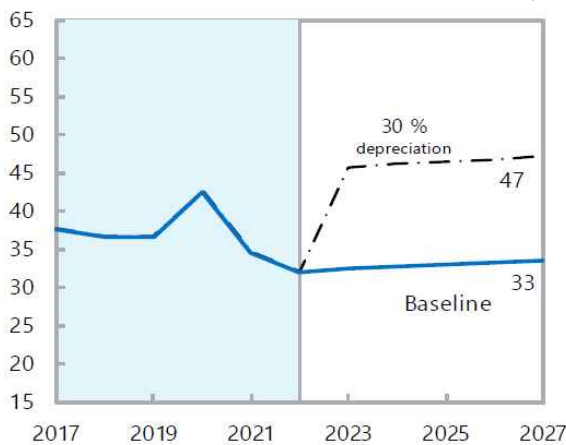
## 외채상환능력

### 코로나19 위기에도 외채 관련 지표는 양호한 수준 유지

- 2022년 말 멕시코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외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따른 GDP 증가 및 외화송금 유입액 증가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폭 완화로 2년 연속 감소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낮은 32.5%를 기록함. D.S.R. 역시 역대 주요국들이 30~40%대를 기록한 데 비해 7.2%를 기록하는 등 외채 관련 지표들이 비교적 양호함.
- 2023년에는 단기적으로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외채상환 비용 증가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멕시코의 양호한 외환보유액 수준 및 비교적 안정적인 외채 만기구조, 신뢰성 있는 재정정책 등을 고려하면 동 요인이 멕시코의 외채상환능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IMF(2022. 11월)에 따르면, 멕시코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27년까지 약 33%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나, 폐소화가 30% 평가절하될 경우 동 비중은 47%까지 상승할 것으로 관측됨.
- 또한, 2009년 4월 17일 IMF가 멕시코 앞 470억 달러 규모의 신속적 신용공여 한도(Flexible Credit Line, 이하 "FCL")를 승인한 이후, 멕시코는 IMF와의 협상을 통해 동 한도를 꾸준히 갱신하며 꼬리위험(tail risk,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발생 시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위험)에 대한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해왔음.

[그림 10] 멕시코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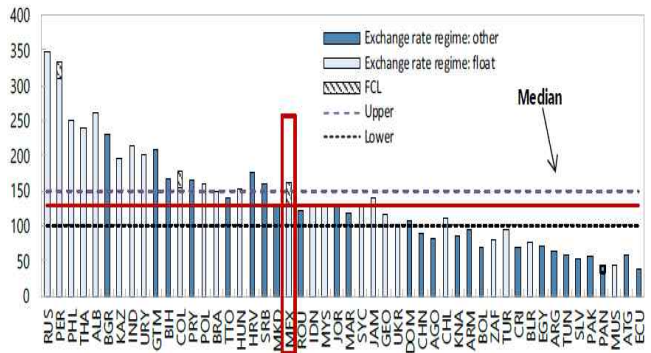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IMF

[그림 11] 2021년 멕시코 등 주요 국가별 외환보유액 수준

(IMF 기준 적정 외환보유액 대비, %)





## 구조적취약성

### 높은 대미 의존도 및 수출 산업의 특정 품목 편중

- 멕시코는 미국의 교역상대국 중 2위 규모의 무역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멕시코 중앙은행에 따르면 미국은 2021년 12월 기준 멕시코 수출의 78%, 수입의 44%를 점유함. 또한 멕시코의 2021년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액 중 95%가 미국에서 발생하였으며, 2022년 멕시코 FDI 유입액의 42.5%가 미국으로부터 유입됨. IMF에 따르면, 2010년대 미국 경제성장률이 1% 변동될 시 멕시코 경제성장률이 1.5% 변동되는 패턴을 보이는 등 높은 대미 의존도는 전통적으로 멕시코 경제의 주요 취약점으로 여겨짐.
- 2022년 기준 멕시코는 미국의 2위 상품교역국(14.7%, 7,793억 달러)으로,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상품 수출·수입 규모는 각각 미국 상품수출의 15.7%(2위) 및 상품수입의 14.0%(2위)를 차지하였음.
- 멕시코는 2021년 기준 자동차 관련 품목(20.6%)과 전자기기·기계류(16.8%) 수출이 상품수출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등 수출품의 구성이 단조로운 편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충격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특히 자동차 산업은 멕시코 GDP의 약 3.5%, FDI의 7.1%를 차지하고 있어, 멕시코 자동차 산업의 부진은 멕시코 경기에 큰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EIU(2023. 1월)에 따르면 니어쇼어링의 혜택은 자동차, 항공우주, 제조업 등 멕시코가 이미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수출·투자 확대에 따른 동 산업과 달리 건설업 등 일부 산업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석유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국제유가 변동에 대응 노력

- 멕시코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산유국임. 2004년 이후 원유 매장량 감소 등으로 인해 산유량이 감소함에 따라 수출액 및 재정수입 측면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감소해 왔으나, 멕시코는 여전히 2022년 10월 기준 세계 12위(중남미 2위) 규모의 원유(172.4만 배럴/일)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가경제 전반이 국제유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함.
- 이에 멕시코 재무부는 연간 Hacienda Hedge(유가 급락에 대비하여 미국 월가 투자은행에서 원유 풋옵션 매입) 계약을 통해 유가하락 위험을 관리하며 원유 관련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있으며, Bloomberg에 따르면 멕시코 재무부는 2023년 상반기에 배럴당 75달러에 원유를 매도할 수 있는 헤지 계약을 맺음.
- Bloomberg에 따르면, 멕시코는 동 헤지 계약을 통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5년 유가 폭락,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도 각각 51억 달러, 64억 달러, 24억 달러의 수익을 얻었음.

[그림 12] 멕시코 원유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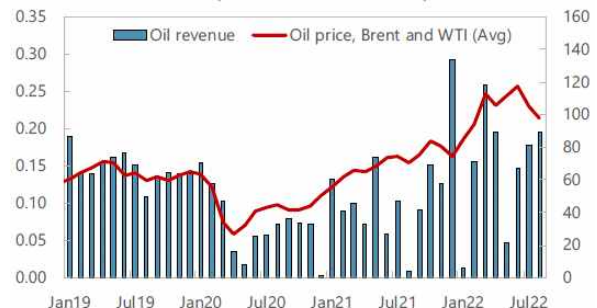
(단위: 천 배럴/일)



자료: EIA, Trading Economics

[그림 13] 유가 변동에 따른 멕시코 GDP 대비 원유 재정수입 추이

(단위: GDP 대비 비중, 왼쪽 축/ 달러, 오른쪽 축)



자료: Bloomberg, National Authorities, IMF

## 성장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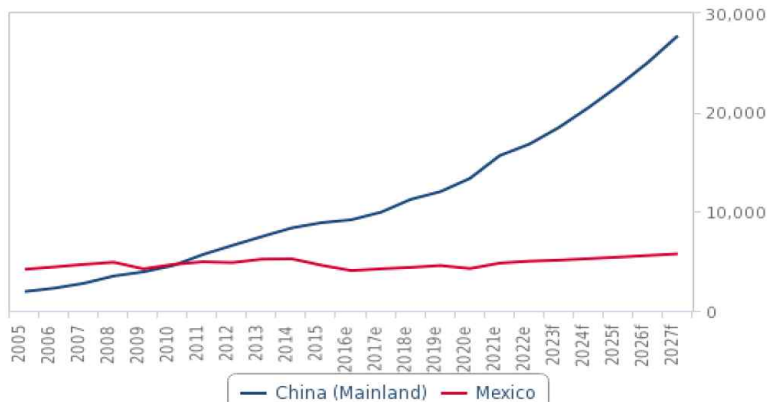
### 풍부한 부존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 보유

- 멕시코는 막대한 석유자원과 은, 아연 등 다양한 종류의 광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원 부국임. 아연, 은 등 광물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하여 향후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미 에너지정보국(EIA) 및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멕시코는 아연(매장량 세계 4위·생산량 6위), 구리(매장량 5위·생산량 10위), 은(매장량 6위·생산량 1위), 원유(20위) 등 부존자원이 풍부하며, 석유 생산량은 세계 12위(중남미 2위) 수준임.
- 아울러 멕시코는 GDP 규모 1.4조 달러(세계 15위·중남미 2위)의 경제대국이자 1.3억 명을 초과하는 인구를 보유한 인구 대국이며,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59.9%를 차지하는 인구구조, 경제 발전에 따른 지속적인 임금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내수시장 규모가 확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지정학적 위치 활용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 속 역할 부상

- 북미와 중남미를 연결하면서 태평양과 대서양에 면해 있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 멕시코는 북쪽으로는 미국과 총연장 3,326km의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과 체결한 태평양동맹(PA)을 통해 중남미 전략시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 현재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중국과의 탈동조화(China Decoupling), 공급망 단위의 분산화 등의 변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미국의 북미 위주 공급망 재편 정책의 최대 수혜지로서 멕시코가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 멕시코는 이미 2018년부터 공급망에서 중국을 대체해 왔으며, 저임금 구조 유지, USMCA 발효 등의 영향으로 미-멕시코 간 니어쇼어링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KOTRA(2023. 1월)에 따르면, 멕시코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어 육로운송 시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며, USMCA 발효에 따른 역내 원산지 비율 규정이 강화됨과 동시에 멕시코 내 생산 시 북미 생산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관세 절감이 가능한 점 또한 강점으로 대두됨.
- 이외에도 멕시코는 다수의 무역협정, 공항·철도·해운 등 우수한 교통망, 국경세관 인프라 등으로 수출입 리드타임 단축에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생산 및 수출 기지로서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그림 14] 중국·멕시코의 제조업 근로자 1인당 연평균 임금 추이 (단위: 달러)



자료: National sources, Fitch Solutions

## 정책성과

### 인플레이션 대응 패키지(PACIC)를 통해 약 2%p 이상 소비자물가 안정 기여

- AMLO 행정부는 서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필수 소비재의 가격 안정을 위해 2022년 5월 '인플레이션 대응 패키지(PACIC, Paquete Contra la Inflación y Carestía)'를 실시하였으며, 생산, 유통, 무역 단계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침.
- AMLO 행정부는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통해 가스·전기 등 에너지 요금을 동결시켰으며, 여기에 약 3,954억 페소(약 200억 달러) 소요된 것으로 추정됨. IMF는 멕시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 수준으로 정점에 달했을 때, 동 정책의 직·간접적 효과를 통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2%p 이상 하락했을 것으로 분석함.
- 2022년 유가 상승으로 인해 멕시코 정부의 석유 관련 재정수입은 2022년 예산 대비 3,978억 페소 초과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며, 기대 이상의 수입을 통해 보조금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
- 동 정책은 정부가 지정한 '기본 장바구니' 총 40개 품목 중 24개 품목의 가격 안정을 1차적인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기존 저소득층 지원 정책 및 농촌 진흥 정책을 적극 활용함. 이 외에도 기본 장바구니 내 21개 품목과 5개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를 6개월 간 면제하며 가격 상승 요인을 제거함.
- '기본 장바구니'의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율은 약 13%로 측정되어, 에너지/연료(10%), 정부 서비스 요금(4%) 등 대비 높은 기여율을 보임. 특히, 식료품 가격상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6%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 동 조치에도 불구하고 멕시코가 주로 소비하는 식품의 상당 품목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식료품 가격상승률의 변동은 미미한 수준임. AMLO 행정부는 2022년 10월 필수 식료품 생산·유통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해 가격 하향을 유도하는 정책을 골자로 하는 2차 인플레이션 대응 패키지(APECIC)를 발표 및 시행 중임.

[표 1] 멕시코의 인플레이션 억제 조치(2022년)

구분	배정 예산 (백만 페소)	GDP 대비 비중 (%)
<b>식료품 가격 안정화 정책</b>	<b>72,823</b>	<b>0.25</b>
주요 수입상품 대체 농업 기술 지원(Sembrando Vida)*	29,904	0.10
중소농업기업 지원(Producción para el Bienestar)*	14,007	0.05
필수 식품 가격 보조	11,373	0.04
비료 가격 보조	5,200	0.02
저소득층 대상 우유 보조금 지급	4,556	0.02
저소득층 대상 생필품 지급	2,228	0.01
농업, 어업 진흥 프로그램	1,606	0.01
기타 식료품 가격 안정화 정책	3,950	0.01
<b>전력요금 보조금</b>	<b>73,000</b>	<b>0.25</b>
<b>유가 보조금</b>	<b>395,400</b>	<b>1.36</b>
<b>총 합계</b>	<b>541,223</b>	<b>1.86</b>

\* 기존 농촌 진흥 정책 활용

자료: 멕시코 재무부

## 정치안정

### 불평등, 부패 및 치안 상황 악화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 심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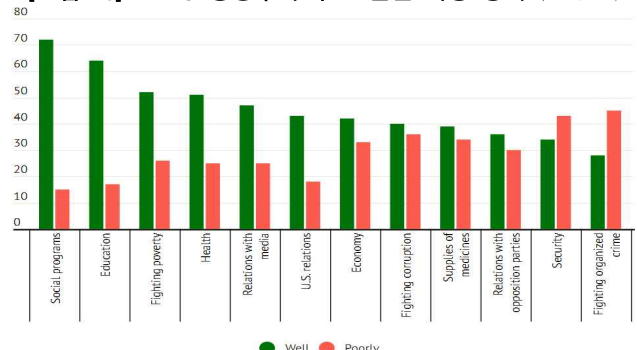
- 멕시코의 여론조사기관 Oraculus 및 AS/COA에 따르면, AMLO 행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2019년 2월 81%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22년 2월 식료품·연료를 비롯한 주요 생필품의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지지율이 59%까지 하락한 이후 2023년 2월까지 60%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함.
- 2021년 6월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국가재건운동(MORENA)를 주축으로 하는 좌파 선거연합(Juntos Hacemos Historia)이 하원에서 개헌 가능선(전체 의석의 2/3) 확보에 실패하며 임기 후반 국정 동력이 다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AMLO 행정부는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토대로 주요 개혁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6월 치러진 6개 주 지사 선거 결과 4개 주에서 여당 인사가 당선됨에 따라 여당은 전체 32개 주에서 20개 주를 확보하며 지방자치 영향력이 강화됨.
- EIU(2023. 1월)에 따르면, AMLO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미숙, 대내 구조적 문제 해결 실패 등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야당이 현 정부의 실수를 본보기 삼은 정치적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EIU와 Merrill Lynch는 멕시코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에너지 정책에 의해 투자심리가 저해됨에 따라 여당의 개헌 가능선 확보 실패를 통해 AMLO 행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오히려 해외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함.
- 한편, AMLO 행정부의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범죄, 소득 불평등, 빈곤 등 고질적인 사회 문제는 지속적으로 멕시코의 정치안정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12월 현지 일간지 Reforma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AMLO 행정부의 주요 현안 대응 평가 중 '사회 보장 프로그램'과 '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각각 응답자의 72%, 64%가 '긍정'으로 답변하였으나, '치안', '부패' 및 '조직적 범죄 대응' 부문에 대해서는 각각 응답자의 43%, 36%, 45%가 '부정'으로 답변하였음.

[그림 15] AMLO 행정부 지지율 추이 (단위: %)



자료: Oraculus, AS/COA

[그림 16] AMLO 행정부의 주요 현안 대응 평가 (단위: %)



자료: Reforma, AS/COA. 2022년 12월 여론조사

## 사회안정

### 열악한 치안, 부정부패 등 후진적인 법치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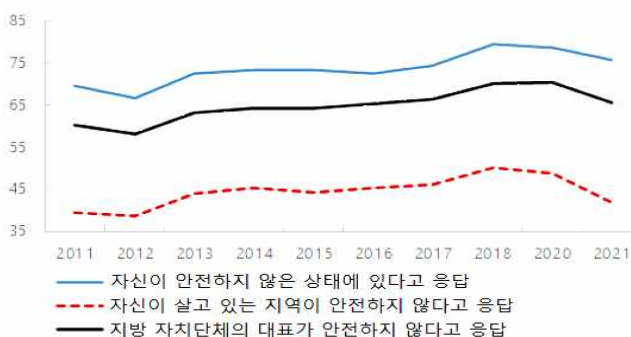
- 거대한 마약 카르텔, 약한 사법체계로 인해 초래된 높은 강력 범죄율 및 열악한 치안은 멕시코의 성장잠재력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IMF(2022. 11월)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자신의 치안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비중이 75%에 달하는 등 사회적 불안이 만연함을 알 수 있음.
- 한편, 멕시코 안보부(SSPC)에 따르면 2022년 멕시코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수는 전년(33,350건) 대비 7.1% 감소한 30,968건으로 AMLO 행정부 취임 후 최소치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3만 건이 넘는 등 열악한 치안 상태를 나타냄.
-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2022 법치주의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의 법치지수는 0.42점으로 세계 140개국 중 115위(중남미 32개국 중 27위)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0.47점)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악화되는 양상을 보임. 부문별로는 부패(134위), 질서 및 안전(130위), 민사 사법제도(131위), 형사 사법제도(128위) 등이 최하위권에 머무름.
- '부패' 부문에서는 입법부의 부패(0.11점), '질서 및 안전' 부문에서는 폭력을 통한 고충 해결(0.23점), '민사 사법제도' 부문에서는 불합리한 지연(0.25점), 그리고 '형사 사법제도' 부문에서는 불공정한 형사 사법제도(0.18점)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됨.

### 높은 빈곤율 및 지역별 소득 격차

- 멕시코는 경제규모에 비해 높은 40% 내외의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역별 소득 격차가 매우 큼.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의 북부, 중부 지역의 경우 니어쇼어링 등의 영향으로 큰 경제적 혜택을 받는 반면, 남부 지역은 제한적인 경제적 기회에 따라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보건·교육 등 인프라 투자 수준이 낮음. AMLO 행정부는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남부 지역 인프라 개발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내세움.
- 2020년 말 농촌 지역 빈곤율은 56.8%로 도심 지역(40.1%)보다 높음. 한편, 코로나19 팬데믹과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도심 지역 빈곤율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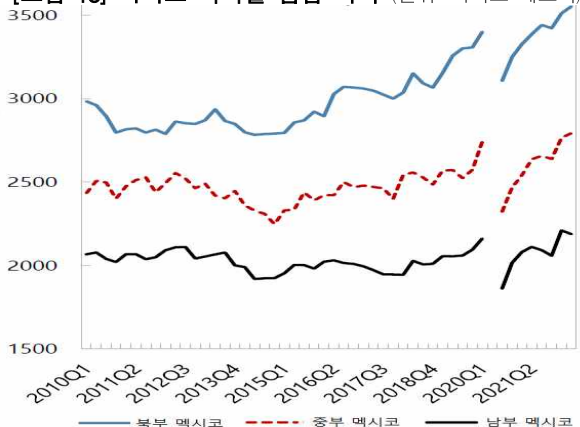
\* 농촌 지역 빈곤율 : 57.7%(2018) → 56.8%(2020) / 도심 지역 빈곤율 : 36.8%(2018) → 40.1%(2020)

[그림 17] 멕시코 치안 불안 인식 조사 (응답자 비중, 단위: %)



자료: INEGI, IMF

[그림 18] 멕시코 지역별 임금 격차 (단위: 멕시코 페소화)



자료: CONEVAL, INEGI, IMF

## 사회안정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개도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Moody's(2023. 1월)는 ESG 요소가 멕시코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2년 9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2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6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4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2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6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0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극심한 기후변화에 노출되어 여행수요 감소, 긴급 재난지원, 재해 대비 지출 등이 멕시코의 지방재정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나, 멕시코 경제의 규모 및 다양성을 고려하면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다만, 멕시코 정부와 국영 석유기업 PEMEX 간의 높은 상호 의존도로 인하여 중장기적으로 저탄소 전환에 따른 리스크가 상존하므로,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멕시코는 자국민들에게 교육, 주택, 보건, 안전 등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 10여년 간 폭력범죄가 급증하여 치안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인구 고령화 추세에도 이를 뒷받침할 사회보장기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향후 관련 문제에 직면할 것이 우려되어,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멕시코는 거시경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해 온 국가이나, 의사결정 과정의 비일관성이 심화될 경우 향후 투자 전망 악화 및 정부의 충격 대응능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물론 멕시코 중앙은행의 신뢰성 있는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부정부패 등 후진적인 법치주의로 인해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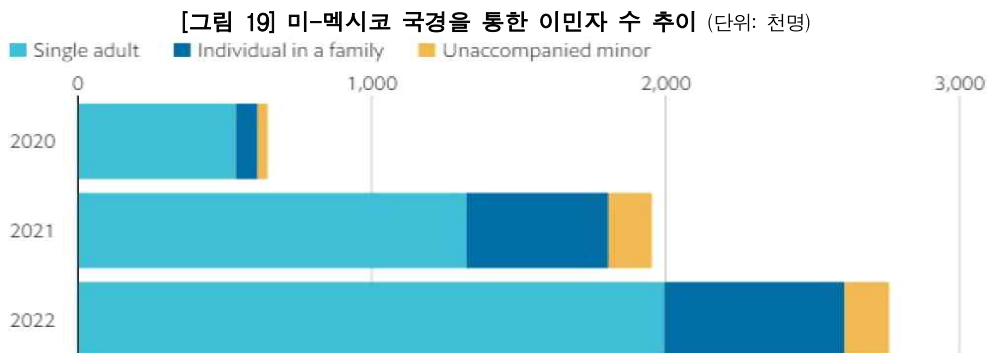
## 국제관계

### AMLO 행정부의 자국 에너지 보호 정책 기조에 따른 무역 갈등 우려

- AMLO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원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우호적인 양자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AMLO 행정부가 PEMEX, CFE 등 국영 에너지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미국은 분쟁해결위원회(DSP)를 통한 협의를 요청함.
- 미국은 동 정책이 자국 에너지 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을 제한함에 따라 USMCA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AMLO 행정부가 멕시코에게 불리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됨.
- AMLO 대통령은 2023년 2월 리튬을 국유화하고 관할권을 멕시코 에너지부에 이양하는 법령에 서명하였으며, 리튬을 특정 방사성 광물과 같은 전략 물자로 선언하는 것은 USMCA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역 분쟁 가능성이 상존함.
- EIU, Moody's 등은 AMLO 행정부가 자국 에너지 보호 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미국, 캐나다 기업의 투자가 저해되고, 무역 보복조치 등의 가능성이 커지는 등 멕시코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평가함.

### 불법이민자 급증에 따른 미-멕시코 국경 지대의 안전 문제 지속

-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직후 곧바로 미-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하였음. 또한 미-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이민자들로 하여금 멕시코에 머무르도록 하는 '멕시코 잔류' 정책(이민자 보호 의정서, 이하 "MPP")을 폐지하는 등 포용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함. 이에 미-멕시코 국경지대에는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들이 몰렸으며, 2022년에는 국경을 넘다가 사망한 이민자 수가 782명에 달함.
-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2021년 10월~2022년 9월 미-멕시코 국경에서 적발된 멕시코 불법 이민자 수는 총 808,339명으로 전체 불법 이민자의 34%를 차지하여 전년(655,594명)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2020년(297,711명) 대비로는 무려 172% 증가한 것으로 2년 연속 높은 증가세를 이어감.
- 바이든 미 대통령은 급증하는 불법이민자로 인한 국경 지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2월 미-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이민자 망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특정 망명 신청자를 제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와 유사한 엄격한 망명 정책을 펼침. AMLO 행정부는 국경 안전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바이든 미 행정부와 건설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있어 향후 국경 안전 제고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EIU

## 외채상환태도

### 증장기 위주의 외채구조와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2022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멕시코에 대한 여신잔액 141.1억 달러(단기 66.4억 달러, 중장기 74.7억 달러) 중 연체액은 2.7억 달러로 1.9%에 불과하며, 외채의 53%가 증장기 외채로 비교적 안정적인 외채구조를 지니고 있음.
- 다만, 전년 동기 연체액 비중(1.6%)과 총외채 대비 증장기 외채 비중(59.0%)에 비하면 외채구조의 안정성이 소폭 약화된 것으로 분석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2022년 10월 멕시코 재무부는 2025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재조정을 확대할 계획을 밝힘.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 (2022.10)	3등급 (2021.10)
Moody's	Baa2 (2022.07)	Baa1 (2021.04)
Fitch	BBB- (2022.11)	BBB- (2021.11)

### 정부부채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 등에 따라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 멕시코는 2009년 이후 OECD 3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사태 및 국제유가 폭락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와 대외 리스크 증가를 근거로 멕시코의 국가 신용등급을 일제히 한 단계씩 하향 조정함.
- Moody's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초래한 민간투자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연금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여력 감소 및 PEMEX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 등을 우려하며 2022년 7월 멕시코의 국가신용등급을 Baa1에서 Baa2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함.
- 또한, Fitch는 2022년 12월 Rating Report에서 멕시코 정부의 경제정책의 신뢰성, 안정적인 공공재정에도 불구하고 PEMEX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 여타 국가 대비 저조한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기존 BBB- 등급 및 '안정' 전망을 유지함.

- 2022년 멕시코 경제는 재정정책 지원, 기대 이상의 석유 부문 수익 등으로 상반기 경기 회복세가 속도를 냈으나, 이후 글로벌 긴축 기조, 공급망 위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전년(4.8%) 대비 저조한 2.1%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3.8%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되나, 2024년 예정된 대선을 앞둔 정부의 포퓰리즘성 지출 증대,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관련 세입 감소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8년 12월 출범한 AMLO 행정부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여력 확보, 사회적 측면에서는 부패치안 문제 개선을 표방하였으나, 국영기업 앞 과도한 자본 투입, 치안환경 악화 등에 따라 정책성과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비록 2021년 6월 중간선거에서 여당 MORENA 주도의 선거연합이 개헌 가능선 확보에 실패하였으나, 60%를 상회하는 국정 지지율을 고려하면 AMLO 행정부의 정치적 지지기반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됨.
- AMLO 행정부는 바이든 미 행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USMCA 발효에 따른 경제적·외교적 성과를 실현하고자 할 것이나, AMLO 행정부의 자국 에너지 기업 보호 정책으로 인한 갈등이 우려됨.